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희 연 | 군산대학교 총장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화학공학 석사,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The University of Arizona, Marvel Laboratories, Research Associate,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산학협력센터 소장, 산업대학원장, 한국고분자학회 부회장,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군산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지역중심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유기합성설계(역), "Novel Cyano-containing Copolymers of vinyl esters for Piezoelectric Materials", "Copolymerization of a polyhydrocarbon macromonomer with methyl acrylate and acrylonitrile in the presenece of a Lewis acid"가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50~60년대 초에는 과외공부라는 용어를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 학교나 학원에서 뒤쳐진 교과목을 보충하거나 가정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과외공부라 했었습니다.

이 무렵의 과외공부는 2000년대의 사교육 형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후 3시나 4시쯤 학교수업이 끝나면 자유롭게 행동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하는 수업을 보충수업이라 하였고, 보충수업 후 담임선생님의 감독 아래 밤 10시 또는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고3학생이나 고3담임선생님은 파김치가 되곤 했었지요.

2000년대 후반인 현재는 어떤가요. 밤 12시 또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온다고 하니, 잠잘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교 수업시간에는 머리만 아프고 졸려서 학습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지요. 21세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교육의 잘못된 순환구조가 아닐까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규수업 시간에는 졸거나 잠을 자고, 학교 밖의 교육에서 모든 것을 채우려 한다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유능하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후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입시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5,60년대의 교육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 당시의 교육환경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스스로의 학습계획을 짜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세대들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

